

# Grace

은혜 2019.10

vol. 201 / OCTOBER  
강남중앙교회

## Contents

- 2p. 칼럼(최병락 담임목사) 3p. 캄보디아 의료선교(이병찬, 이윤정)
- 4-5p. 강중침 제1회 W.O.R.L.D CUP 6p. 어와나 소개
- 7p. 국내선교편지(전혁수)/ 해외선교편지(양재학, 이종분)
- 8p. 새가족 간증(전상우)/ 새가족 정착(이미희) 9p. 현아식 소개
- 10p. 수험생 기도와 응원 11p. 구약개론(피영민 목사)/ 바울의 생애 칼럼
- 12p. 광고 : 차세대교육국 성경암송대회/ 100만 시간 기도표



제1회 강중침  
W.O.R.L.D CUP  
2019. 9. 28

# 부족함은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모나리자〉그림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해석하기 힘든 여인의 신비한 미소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그렇다면, 그 신비한 미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무엇이 그 그림을 신비에 쌓인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라진 눈썹 때문이다. 모나리자 그림에 나타난 그 여인에게는 눈썹이 없다. 다빈치가 의도적으로 그려 넣지 않은 것인지, 시간이 없어서 못 그린 것인지, 혹은 지워졌는지는 몰라도 눈썹이 없는 것은 확실하다. 여인의 얼굴에서 눈썹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많은 여성들이 눈썹화장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심지어 눈썹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 문신까지 새기기도 한다. 눈썹을 깨끗이 면도하고도 길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여인이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남자들의 남심(男心)을 뒤흔드는 모나리자의 얼굴에는 눈썹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오히려 눈썹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된다. 모나리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게 되고, 입가에 조심스럽게 번진 미소를 읽게 된다. 눈썹에 집중될 눈들이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되면서 모나리자의 모든 표정이 캔버스 위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족함은 신비한 매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부족하고 모자란 한 가지 때문에 보이지 않던 나머지 소중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고,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어진다.

너무 강한 한 가지 장점 때문에 묻혀 있었던 숨은 장점들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장점이 사라지는 순간 여기저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마치 눈썹없는 모나리자의 얼굴 때문에 얼굴 전체가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게 된 것처럼 부족함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 하나는 ‘벧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암복강’ 사건이다.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섰을 때 일어난 일이다.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의 칼을 피해 40년동안 살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암복강은 하루만에 80km를 달렸다. 장정걸음으로 스무시간, 달려서는 10시간이 넘는 거리이다. 그가 그곳에 멈추어 선 것은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광야에 익숙한 형이 언제 나타나 자기의 목숨을 가져 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그는 잠이 들었다. 이때 암복강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 잠을 자는 중에 형이 나타나서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지친 상태가 암복강의 상태였다. 그때 비로소 40년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암복강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쫓겨가는 그를 암복강에게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 28:15)

이 약속과 함께 암복강은 아침햇살에 눈을 뜨게 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눈을 감았던 지난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암복강의 눈이 열렸다. 그리고 그 벧엘땅에서 멋진 보물을 발견했다. 그 보물이 무엇일까? 바로 부족한 나(암복강)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 보물에 관한 일화가 내게도 있다.

암복강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 28:16)



최병각 담임목사

나는 우리 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생각했다. 내가 길렀으니 두 아이들을 아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에 양말이 있는지 어디에 세탁기가 있는지, 언제 밥을 먹고 주 메뉴는 무엇인지,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잠드는지 생활습관까지 모두 알고 있다. 정기적으로 받아오는 아이들의 성적표에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 무슨 과목에 강하고 무슨 과목에 취약한지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아내가 한국을 방문하려 한 달간 집을 비우기 전까지는... 아내가 한 달간 한국을 방문했다. 남겨진 사람은 나와 중학교 1학년 딸, 그리고 4학년 아들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날 밤 우리집은 축제가 열렸다. 밥 대신 피자를 시켜먹고 아들과 딸은 텔레비전을 보고, 나는 음악과 함께 책을 읽었다. 최고의 밤이었다. 딱 하루만! 나는 아내가 없는 한 달 동안 내가 있다고 했던 것들이 ‘우리 집안에 서 일어나는 것들 중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룻밤의 즐거움을 끝으로 시작된 아내가 없는 한 달은 너무나도 길고 힘들었다. 수많은 숨겨진 일들이 고개를 내밀었고 나를 괴롭혔다. 아내 한 사람의 부재 때문에 숨어있었던 수백 가지의 일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부재는 또 다른 발견이라는 격언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기간이었다. 더불어 아내의 부재는 나에게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첫째, 아내의 수고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다시 말해 살림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끝도 없는 빨래와 설거지는 사람을 지치게 했다. “살림”이란 “살린다”는 말의 명사형이다. 아내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림에 힘썼는지를 알게 되었다. 콩나물 시루같은 우리의 일상에 아내가 얼마나 많이 보이지 않는 물을 주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둘째, 아이들의 장점과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살림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바쁜 목회에서 속도를 늦추고 아이들을 바라보노라니 장점과 단점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장난끼가 많은 4학년 아들에게 야단만 치던 나는 잠들려고 누워있는 침대에 기도해주려 들어갔다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침대 옆에 다음날 입고 갈 옷을 잠바에서부터 속옷까지 차례대로 정렬을 해놓고 가방과 간식까지 가지런히 놓아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침 6시 30분에 깨우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일어나 세면을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내가 있었다면 나는 준비성과 책임감이라는 아들의 장점을 끝까지 못 보았을지도 모른다. 셋째, 가장 중요한 발견, 바로 아내의 소중함을 발견했다. 그때까지 아내를 향한 나의 바램이 모두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아내의 부재는 수많은 불편함을 만들어 내었지만,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처럼 결핍과 부족함은 불편함을 넘어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있던 것이라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고마움으로 다가오게 된다.

부족함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배가 고프면 모든 것이 맛있게 보이듯, 부족과 결핍 속에서는 모든 것이 소중한 것으로 부상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그 소중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자주 부족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런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것들을 보게 만드신다.

한참 달리던 도로에서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져 차가 멈춰있다면 기름을 사려 달려가기 전에 멈춰선 곳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야한다. 이목을 집중하다보면 10년을 달렸던 길인데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봄이 오고 가을이 오는 들판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고, 얼음이 녹아 흐르는 개울물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가 손끝을 간지럽히고, 익어가는 과일냄새가 코끝을 자극할 것이다. 문방구 앞에서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친구를 부르는 새들의 지저귐 같은 생명의 소리들이 들릴 것이다. 그렇게 만물 속에서 말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주유소까지 걸어갈 힘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하란으로 달려가다가 멈춰선 벧엘에서 고백했던 암복강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늘 생기게 될 것이다.

(최병각, ‘부족함’, 두란노, 2015)



## 2019 강중침 의료선교 캄보디아 의료선교

Cambodia Phnom Penh  
2019. 9. 11 - 15



접수팀에서 봉사하는 최병락 담임목사



이병찬 행정팀장



어린이 사역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료선교 위원회(이하 줄여서  
의선회)가 총 80명의 인원  
으로 9월 11일부터 15일까  
지 4박 5일간 캄보디아에  
선교를 떠났다. 사역팀 구성  
은 어린이 사역을 진행하는  
'어린이팀', 선교지에서 선교  
팀의 식사를 준비하는 '식사  
준비팀', 통관 및 짐 준비와  
이동을 담당하는 '운영팀',  
전체 행정과 사진 및 영상을  
담당하는 '진행팀', 마지막  
으로 진료와 간호, 약제를  
하는 '의료팀'이다.

9월 11일에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후 떠난 의선회는  
12일 프롬펜에 도착해 현지에 있는 '빛의 자녀 교회'에서 의료  
봉사 및 선교를 시작했다. 5년 만에 찾은 '빛의 자녀 교회'는 의  
선회가 도착한 그 날에 새 예배당이 완성되어 첫 예배를 강중  
침 의선회가 드리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의선회는 이비인후과, 한방/통  
증의학과, 내·외과, 산부인과, 안과 총 6가지 진료 과목으로 12  
일 412명, 13일 454명, 14일 164명(오전진료)으로 총 1,030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또한 매일 모  
여드는 300여명의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복음을 전했다.  
특히 최병락 담임목사님이 참여하여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  
여 그 의미를 더했던 2019 캄보디아 의료선교는 14일 밤 비행  
기로 귀국하여 15일 주일 아침에 전원 무사히 귀국하였다.

의료선교 위원회 이병찬 행정팀장



의료팀



어린이 사역

## 선교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의료선교회 이윤정 집사(치과 전문의)



이윤정 집사



강중침 의료선교회

강중침 의선회는 추석연휴에 해외의료선교를 갑니다. 민족대명절 추석에 저는 시댁, 친정  
이 아닌 선교지를 갑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곳 사람들과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며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며 달려가는 선교사님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음에도 그 분들의 삶  
속에는 감사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 곳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아이들을 가  
르치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 캄보디아 땅을 변화시켜  
가는 비전이 있습니다. 매 해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그분들의  
기쁨이고 열매입니다.

올해는 추석의료선교를 떠나기 직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탄이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이 싫었겠지요. 하지만 순종으로 오른 그 여정에는 이전 보다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1세 사랑이부터 팔순권사님까지 80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  
하고 나아갔습니다. 더운 날씨에 습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 특히 정전되고 비가 오  
면 온통 흙탕물이 되는 그 곳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  
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처음 의료선교를 갔을 때에는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가 좀 멋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았던  
선교지를 통해 그곳에 갈 수 있는 달란트를 제게 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그 곳에서 섬길 수 있고, 예수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그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석연휴에 의료선교를 가는 것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는  
전 부치는 것보다 재미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매일 넘어지고 절  
망하고 울다 주님 붙들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저는 살기 위해 하나님

을 만나러 갑니다. 치열한 선교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둘러싼 현실과 욕심들이 내가 하나님께 가  
까이 가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마치 도시의 화려한 불빛 가운데서  
는 하늘의 별을 찾기 어렵지만 깜깜한 사막에서 하늘 가득 별만 보이는 것 같이 저에게 이  
시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머리  
로는 짐작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  
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는 감사를 넣고, 비전은 비전을 넣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을 만나고 제 마음 속  
에는 큰 부담감이 남았습니다. 이 부담감을 어떤 비전으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  
용해가실지 저는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그저 제 자리에서 제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것에 만족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한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  
나님 의지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 분 뜻대로 일하시며 철저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  
을 살고 싶습니다.

의료선교는 의사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본 적 없는 일들을 배워가며 도와주신 많은  
손길과 드러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도와주신 많은 돋는 손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지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가족들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 우리를 사용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강중침 제1회 W.O.R.L.D CUP 성공적인 개최!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즈베키스탄

한국은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다문화 국가로 성큼 올라섰다. 이제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한반도로 나날이 탈바꿈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도 이들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에 발맞춰 우리 곁으로 다가온 다민족과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다.

최병락 담임목사는 손바닥 위에 올려지는 작은 축구공 하나에 70억 세계인이 열광하는 월드컵에 큰 감동을 하였다. 모든 세계인이 축구를 사랑하기에 지구촌이 하나 되는 매개체로도 축구만 한 게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성도들과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고, 강중침 온 성도가 함께 힘을 합쳐 월드컵을 교회에서 재현해 보고자 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나가지 않아도 우리 곁으로 다가와 준 다민족과 강중침이 축구를 통해 하나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시작되었다.

최병락 담임목사는 “(나도) 미국에 살면서 마이너였고 인종차별도 받았지만,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이니 모두가 마이너”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선교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우리 역할은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월드컵 개최가 선포되자 체육위원회는 월드컵을 기획하고, 선수들을 열심히 찾아 나선 끝에 외

국인 유학생 5팀(몽골-2팀, 중국, 우간다, 한국외대 12개국 연합팀) 근로자 5팀(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강중침 연합)으로 총 10개 팀이 참석하게 되었고, 20여 개국가의 외국인들이 본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최병락 담임목사는 “모든 성도가 월드컵을 통한 이주민 선교사역에 동참합시다”라는 비전을 이루고자 체육위원회는 “월드컵 써포터”를 모집했다. ‘경품 및 선물 써포터’, ‘플리마켓 써포터’, ‘스태프 써포터’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후원계좌 써포터’이다.

강중침 써포터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세탁기, 노트북, 컴퓨터, 무궁화 비누 세트, 블루투스 이어폰, 쌀, 떡볶이 400인분 등 다양한 선물과 경품들이 셀 수 없이 지원됐다. 또한 플리마켓을 위해 깨끗한 중고 물품도 쌓여갔다. 후원계좌에는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모금되었고, 약 100여 명의 스태프가 스스로 자원하여 월드컵에 동참하였다.

9월 28일 토요일 양수리수양관 천연 잔디구장은 이른 아침부터 노란 조끼를 입은 스태프들의 발 빠른 준비로 분주하였다. 오전 8시에 도착하는 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교회에서 준비해준 버스를 이용해 경기장에 도착한 선수들은 각국에 배치된 팀매니저(팀장, 통역, 안내)의 안내를 받아 월드컵에 참가하였다. 또한 스태프는 안내팀, 행사 진행팀, 경기 운영팀 등의 각각 파트에서 최선을 다하여 대회 진행을 도왔고, 참가자들의 불편을 덜어주었다.



풍성한 먹거리



플리마켓을 쇼핑하는 참가자들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몽골 바트 선수



선수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메디컬팀



환대를 받으며 돌아가는 발걸음

#### ▶ 1. 축구 경기

제1회 W.O.R.L.D CUP은 50여 개 조항의 정확한 규정에 따라 참가국 10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하루 만에 예선부터 결승까지 경기를 소화해야 하므로 경기 시간을 단축하여 예선전과 결승전은 전, 후반 각각 20분씩, 본선은 전, 후반 각각 15분씩 진행했다. 각국 선수들의 열정에 한 경기도 눈을 뗄 수 없는 명경기가 되었다.

#### ▶ 2. 플리마켓

예선전은 모든 나라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함께 참석한 가족들도 응원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오후 예선 탈락 팀이 발생하면, 탈락한 팀과 가족들, 친구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위해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플리마켓이 열렸다. 외국인 참가자에게 티켓을 주고, 선수들과 가족들은 쇼핑에 나섰다. 이를 위해 대학생 30여 명이 플리마켓을 쇼핑하는 참가자들을 도왔다. 쇼핑을 즐기느라 탈락의 아쉬움도 잊은 듯 보였다.

#### ▶ 3. FOOD ZONE

아침 일찍 축구대회에 참가하느라 끼니를 챙기지 못한 참가자들과 스태프를 위한“FOOD ZONE”은 큰 인기를 누렸다. 여전도회의 밝은 미소로 문을 연 FOOD ZONE은 아침에는 따듯한 어묵탕과 떡볶이, 빵으로 선수들과 스태프의 허기를 달래주었고, 오후에는 카페로 변하여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으며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 ▶ 4. KIDS ZONE

월드컵에 참여한 자녀들은 KIDS ZONE에서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등 민속놀이를 즐기며 한국 문화를 접했다. 특별히 자원봉사자인 한국의 아이들과 월드컵에 참여한 다양한 국가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뛰어놀며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남전도회에서 스태프를 지원하고, 오전 남전도 야유회 후에 오후에 운동장에 모두 올라와 선수들과 참가자들을 응원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위원회에서는 Medical team이 선수들의 안전을 도왔고, 출판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최병락 담임목사님께서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 전하셨던 “복음 설교”를 영어로 번역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복음을 전했으며, 영어예배에서는 통역 스태프 지원, 홍보위원회에서는 드론 및 전문 촬영 장비로 모든 행사를 영상에 담았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양수리 수양관에서는 천연잔디 구장과 다양한 물품들을 지원하였다.

그야말로 모든 성도 모든 위원회가 함께 이루어낸 성공적인 월드컵이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우간다팀의 무테비는 “한국에 온지 2년이 되었는데 이런 행사는 처음이었다. 음식과 선물도 좋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친절해서 너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특별히 항공권의 주인공이 된 몽골의 ‘바트’와 우즈베키스탄의 ‘정영나’씨는 “생각하지 못한 너무 큰 선물을 받게돼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또한 스태프으로 봉사한 길영숙 집사는 “외국인 분들이 가족과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하셔서 하나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라고 하였다.

우리 교회는 제1회 월드컵을 시작으로 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다민족이 강중침을 통해 월드컵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자”라는 슬로건에 따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 만명의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기로 했다.

교회는 이번 축구대회에 참가한 다민족 이주민들과 계속해서 연계하여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선교 사역을 이어갈 것이며, 복음을 전하기에 힘쓸 것이다.





일꾼

## 어와나, Awana를 아시나요?



### ●○●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시간은?

**이길호** 전도사 | 커비(유치부 5~6세, 전도사 3, 사모 3, 교사 5)단과 불티(7세~초등2, 교사 교역자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11월, 3~7월간 진행되고 12~2월, 8월은 방학입니다. 현재 불티단 19명, 커비단 14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였습니다. 9월 말이면 최종인원이 확정되고 교사도 충원되리라 믿습니다.

### ●○● 가장 궁금한 건데요, 금요성령집회의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포기하고 교사로 지원할 수 있었을까요?

**신은희** 집사 | 주님께 받은 것이 많으니 돌려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지원했습니다. 제자 양육이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나누어야지요.

**강순정** 집사 | 모든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수요일에 예배하며 은혜 받고 금요일 밤엔 아이들이랑 게임하고 말씀암송하며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말씀 암송하는 아이들 보며 도전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재** 학생 | 제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데 이미 취업이 결정되어 예배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연** 집사 | 저는 경재를 보면서 교사로서 도전받는데요. 이미 취업이 확정되어도 다른 곳에 가서 놀고 싶고, 예배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학창시절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미영** 집사 |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Awana 교사를 했어요. 10년 전 교회를 옮기고 쉬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도 생기게 되어서 기쁘게 지원했습니다.

- 어쩐지~ 가슴에 훈장 같은 게 많이 있는 이유가 그거였군요.
- 네. 말씀암송하고 미션을 완성하면 하나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 ●○● 아직 도입 초기라서 어려운 점이 적지 않지요?

**강진모** 전도사 | 교사가 많이 필요해요. 제가 게임 리더인데요, 지난 주는 추석이기도 했지만 교사가 없어서 게임진행을 못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사로 지원하셔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wana는 3개월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딱 3개월만 교사를 하셔도 됩니다! 3개월 만이라도 큰 도움이 돼요! 특별히 교사의 자녀에게는 Awana등록비를 절반으로 할인해드립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어와 등등 아니고 너와 나 아니고 어와나. '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안정된 일꾼(Approved Workmen Are No Ashamed)'이라는 뜻으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영어성경에서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1950년 미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선교 단체로 등록 후 현재 100개국, 300만 명의 다음세대가 Awana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시작되어 현재 초교파적으로 대형교회와 작은 개척교회까지 약 350여 개 이상의 교회가 동역하고 있습니다. Awana는 복음중심, 성경암송, 재미있고 흥미진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 견고한 리더십 개발의 다섯 가지 사역 원리를 가지고 정해진 커리큘럼에 맞추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어와나 사역소개서에서 인용)

우리교회는 금요성령집회 시간에 Awana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려면 당연히 교사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자니 사역자가 또한 필요하지요. 처음 Awana 교사모집 광고가 나가고 '누가 자기 예배를 포기하고 아이들을 돌보겠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알맞은 때에 필요한 일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신나게 게임하고 있는 아이들

금요성령집회의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것은 모두 아시지요?

한 주 내내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성령의 소낙비로 시원하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싶은 것이 대부분 성도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귀하고 소중한 은혜의 시간을 드림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평생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 교사들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중심에 서보시지 않겠습니까?



## 국내 선교 편지 한국 마라나타교회

마라나타~♡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날씨가 밤에는 조금씩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최근 들어 충남대 의대, 간호대학생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두 명이 등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교회에 잘 정착하여 꾸준히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25일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자매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중에 침례를 받는데 침례자의 간증을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침례자 자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몇 달 전부터 저에게 호흡기와 신경계 질환들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몇 주 전 한 주간 주중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힘을 내어서 치료받으며 계속 사역을 진행을 했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주중 예배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9월 1일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공부와 차량운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호흡곤란으로 문제가 생겨 많이 힘들었습니다. 조금 힘든 일을 하면 호흡곤란이 오고 있습니다. 긴급기도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상태로는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힘들지만 기도하며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바로 찾아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거라 믿습니다. 치료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침례를 받고 있는 두명의 자매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항상 후원해 주시고 기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항상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 한국 마리타교회 전혁수 목사 |

### 기도제목

1. 새로운 2명의 새신자 청년들이 교회 잘 정착하도록
2. 침례받은 2명의 자매를 위해서
3. 교회의 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4. 담임목사의 병이 완전히 치료되어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5. 교회에 30명의 동역자를 불여 주시기를 위해서
6. 아내와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성령충만을 위해서

## 해외 선교 편지 불가리아 양재학·이종분 선교사



로지노 교회



바나 교회



바나 교회

안녕하세요. 강중침 식구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건강문제로 잠시 한국에 다녀온 직후부터 예배당 건축 일로 꽤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저희와 동역자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과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선교지에 돌아가면 곧바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었는데, 이곳에 돌아오면서 두 교회의 건축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건축이 시작된 싸란씨 교회는 현재 지붕까지 올라갔고 지금도 조금씩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노 교회는 이웃에 사는 이슬람 사람들의 반대로 건축허락이 막혀있었는데, 저희가 이곳에 돌아온 직후에 아예 집을 사서 방을 트고 수리하고 좀 더 이어 지어서 예상보다 빠르게 두 주 전에 입당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내부수리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로지노 성도들이 하루라도 빨리 넓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해서지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던 넓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찌나 기뻐하는지 보는 저희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좁은 방에서 예배드릴 때에는 일부 성도들은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집에 돌아가곤 했으니까요. (이곳의 집시들은 정말 가난하고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세 번째 건축하는 교회는 이곳에서 자동차로 세 시간 남짓 걸리는 바나라는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바나교회의 건축은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곳 역시 예배장소가 너무 좁다 보니 예배드리려 온 사람들 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저희는 주님께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 곳도 건축을 해야 되나요?” 여쭤보면서 기도했지요. 그런데, 건축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그 곳의 건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몇 교회의 건축에 몸이 좀 피곤하긴 하지만 주님만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니까 그저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있어요. 그 곳 성도들에게도 주님만의지하며 같이 기도하자고 했고요, 모든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건축을 위해서 벽돌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씩 모아서 시멘트를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벽돌을 사주니까 건축이 시작되었고,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겨울 전에 완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저희의 선교사역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대해 최병락 목사님을 비롯한 강남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출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 불가리아에서 양재학, 이종분 |



## 오직 하나님, 주님만이



전상우 성도

“상우야, 교회 가자. 성탄절 선물 준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회유책도 싫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채플은 맘 놓고 농땡이 치는 번잡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 진출 후 두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살면, 경제적 자립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believe myself’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갈구하던 물질의 풍요를 채울수록 공허함과 방탕함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차도, 좋은 직장도, 기름진 음식도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번민이 시작되었고 작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은 믿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전 사장, 골프 한번 갑시다.”

교회 내의 자선골프행사였습니다. 주님께 의지한 교인들의 행복한 모습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함께하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시기에 좋으시지 않으셨다 봅니다. 죄가 덕지덕지 늘어붙어 망연자실할 때, 사랑의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잡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믿음이 적은 작은 자들아.” 첫 예배 때의 말씀은 저를 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속죄합니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모친을 인도하였습니다. 모친의 손을 잡고 교회로 향하는 주일이 매일 기다려집니다. 수십 년간 지내왔던 추석 차례를 폐지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미약한 저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소서. 제발 저를 깨우소서, 저를 쓰소서. 제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코수염 멋진 랜드스크린골프 이종현 사장님의 전화였습니다. 덜컥 수락하고 보니 강남중앙침례

| 3교구 전상우 성도 |



##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 말씀에 이끌려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학창 시절, 어머니는 주일성수를 매우 중요시하시고 제가 주일을 지키지 못할까 염려하여 예배 후 주보를 챙겨 오라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교회예배를 드리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 저에게 요구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주일예배를 잘 드리고 학업생활에 임하기를 당부하곤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면 맨 뒷자리에 앉아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던 젊은 날의 모습을 회상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훌륭한 딸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발판으로 저는 제 일에 집중했고, 연로하신 부모님은 제 신앙생활에 점차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멀다는 이유로 또는 너무 피곤해서 전 제 멋대로 교회 나가기를 멀리했습니다. 어머니는 내심 말은 못 하시고 기도로 제 행동을 지켜만 보셨습니다. 예배는 제게 늘 마음의 무거운 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동료인 문혜경 권사가 다니는 강남중앙침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죄병락 담임목사님께서 ‘가정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시리즈 II)’는 주제로 뜨거운 말씀(행 2:1-4)을 전하셨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다락방 집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과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만나는 장면을 들을 때, 저는 어릴 적부터 항상 문을 열어놓고 이웃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섬



이미희 성도(뒷쪽)와 어머니

기고 헌신하셨던 제 어머니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섬김과 헌신과 기도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붙들어 강중침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금요성령집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뜨겁게 섬기는 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인도로 사회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뤄왔는데 그것을 잊은 채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교만을 뼈저리게 느끼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제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자 제일 기뻐하신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여름휴가를 부흥회 일정에 맞춰 온 가족들이 수양관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모습이 매우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참석하여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조

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글을 쓰기도 매우 부끄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강중침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곁으로 더 더 가까이!

| 7교구 이미희 성도 |

LEVEL  
UP!

## 현아식을 소개합니다.

66

이전까지는 해마다 분기별로 현아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식의 현아식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2일에는 새롭게 바꾸는 현아식을 앞두고서 분기가 지나도록 현아식을 받지 못했던 유아들을 위해 합동 현아식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강단에 다 나와서 현아식을 받으니 그 모습만으로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22명의 유아들이 가족들과 성도님들 앞에서 축복을 받으며 부모님과 성도님들의 서약으로 헌신을 다짐하니 큰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99



- 1. 현아식 신청은 분기별이 아니라 수시로 신청 받아서 예배 스케줄에 따라서 날짜가 지정되게 됩니다. 현아식 신청 대상은 생후 6~8개월의 영아들입니다.
- 2. 현아식 날짜가 개별 고지되면 주일 5부 예배 시간에 진행되고 한 가정씩 배치되게 됩니다.
- 3. 현아식을 위해서 부모님께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현아기도문, 현아기도문 녹음파일, 사진 약 30매, 간단한 신상정보 기재
- 4. 현아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가족들과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아문답 (모든 성도님들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는 서약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아이를 교회의 일원으로써 함께 키워가겠다는 서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② 현아증서와 현아기도문 (영적 가장인 아버지에게 수여) 그리고 화관(아이를 낳느라 수고한 어머니에게 수여) 증정

③ 축복기도 및 축복송

마지막으로 현아식을 섬기기 위해서 현아팀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가정사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항상 든든한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호 장로님. 지난 10여 년간 묵묵히 현아식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오봉택 집사님(현아식에 관한 문의도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매년 가족 사진촬영으로 수고해주시고, 현아식에서도 영상제작을 맡아주고 계신 김명일 집사님. 여기에 가정사역위원회 재무이시자, 화관을 구하기 위해 고속터미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는 허선아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얼굴들도 있는데요. 김정한 집사님과 김한규 집사님은 이번에 새롭게 헌신해주시기로 하셔서 진행을 위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셜 스태프로 정일 간사님께서 사진 촬영과 문서 제작에 수고해주시고 서재우 영상 간사님께서 아름다운 영상제작으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현아식을 통해 우리 가정의 소망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아기도문은 부모님이 작성하시면 되는데, A4 용지 1/2 ~ 2/3 분량이면 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과 주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된 기도는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성된 현아기도문은 추후에 멋지게 인쇄되어서 액자에 넣어 선물로 드립니다. 나중에 자녀가 커서 그 기도문을 읽으면 얼마나 감동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현아기도문을 작성하시면 아버지께서 1분 내외로 읽으셔서 핸드폰에 음원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음원 파일을 가지고 은혜로운 현아기도문 영상을 제작해드립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방에서 조용한 가운데 녹음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리나 잡음이 들어가게 되면 영상 제작에 어려움이 있으니 여러 번 녹음하시더라도 맑고 고운소리로 녹음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내주신 사진을 활용해서 영상제작을 하오니 다양한 사진을 잘 선정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 등재되오니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아이들아! 힘내라!



비전고등처 3학년 학생들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수시원서 접수는 이미 9월에 마쳤으니, 사실상 수험생들은 지금 한창 입시 중입니다.

차세대교육국 비전고등처 3학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입시와 취업, 새로운 시작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Q. 수능(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스스로 해주고 싶은 말은?**

- A. 다른 사람들 보다 어린 나이에 사회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한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기준인 것 같다. 그렇기에 늘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고 해주고 싶다.
- A.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과 부모님, 취업을 할 수 있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자
- A. 수능과 취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영원한 분을 바라보고 오직 그로 인해서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자. 어른이 되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Q. 고3인 나에게 주일 예배란? OOO이다. 그 이유는?**

- A. 저에게 주일 예배란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주일 예배를 갈 때마다 이번 주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 걸맞은 모습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 A. 나에게 주일 예배란 네임클로버인 것 같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 속에서 가치 없는 세잎클로버만 보는 것 같다며 예배에 자리에 나올 때마다 네잎클로버를 보았을 때 느끼는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만족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 A. 끝날 때까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A. 후회 없게 준비해서 수능 대박, 논술 대박!
- A. 공부에만 집중해서 시간 알차게 쓰기/건강하기/수능 대박/논술 대박

## 고3 아빠의 편지글

대학보다 더 중요한 사명!

딸아! 매일 학교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밤 12시가 넘어 집에 오면서도 하루 수고에 대한 뿌듯함보다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성적 때문에 낙담하며 진로를 걱정하는 너의 모습을 보며, Cool 한 척 답변하는 아빠지만 사실은 많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 되곤 한다.

그 때마다 위로한답시고, 장황하게 뻔한 단어들을 써가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아 아빠 마음 속에 담아두었는데, 너가 원할 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써 본다.

세계적으로도 가혹하기로 유명한 한국의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잘 극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경쟁보다는 좋은 교우 관계의 유지 그리고 선생님들과 주변 어른에 대한 예의 바른 자세는 명문 대학을 갈 수 있는 상위 성적을 얻는 것 보다 더 칭찬과 박수를 받을 너의 모습이라고 아빠는 생각한다. 대학 입학은 대부분 3년 공부한 성적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인생의 성공은 너가 보여준 그런 자세와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란다. 그런 너의 모습에 참 잘 자라주었다고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고, 너도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 좋겠구나.

명문 대학의 간판을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중요한 것은 너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오직 좋은 대학만을 목표로 노력하는 것보다, 그 사명을 깨닫을 때 까지 지금의 너의 모습처럼 맡겨진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아빠는 강조하고 싶구나.

올해 8월 한여름의 말씀 축제에서 피영민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올림픽 경기의 감동적인 일화는 1등, 2등, 3등의 메달보다, 포기하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진정한 1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실화였단다. 약 한 달 후 있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좋은 대학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더 충실히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해 달라고 아빠는 기도한다. 그 사명에 따라 어떤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떻게

대학과 사회 생활을 할 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아빠는 믿기 때문이다. 그 사명감을 발견할 때 까지 주변의 친구나 타인과 비교할지 말고, 더 쓰임받는 사명을 받기 위해 몇 가지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아빠는 기도한다.

첫째, 최병락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코이노니아의 교제 속에 거하고 있어야 한다. 세상 미디어와 풍조는 성경적 가치관을 많이 왜곡하기에 청년의 때에 코이노니아의 교제 속에 성경적 가치를 확립하고 지키는 몸부림을 쳐야 한다. 명문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직업을 가졌으나 탐욕과 교만으로 범죄한 많은 사람들을 뉴스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단다. 반대로 대학 이름과 관계없이 그 받은 사명에 충성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학업적 성과나 관계적/사회적 업적을 이루는 많은 분들을 발견할 수 있단다.

둘째, 너가 보고 접하는 한국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세계를 품고, 어학에 힘을 쓰면 좋겠다.

셋째, 수능 시험 부담으로 하지 못했던 독서를 일상화 하기를 권면한다.

넷째, 전공에 최선을 다해 전문가가 되기를 바란다. 성적이 좋아 명문 대학은 갔으나 전공을 게을리하여 실제 필요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교만하여 맡겨진 일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단다. 대학 이름을 앞세워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학업에 충실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지식과 경험을 쌓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학은 시작점일 뿐, 앞으로 너의 사명에 대한 헌신이 인생 경주의 총체를 결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종착점에 도착하기를 아빠는 기도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하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얹매이기 쉬운 짓을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12:1~2)"

너에게 주님이 보여주실 사명을 기대하는 아빠가



## 피영민 목사님의 구약개론



### 역대하 개론 9(상) 역대하 20:20-30

**역대하 20장은 여호사밧 시대의 전쟁과 큰 승리의 사건이다.**  
 모압 군대, 암몬 군대, 그리고 마온 사람이라고 불리는 세일 산 거민이 연합하여 여호사밧 왕에게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다. 이 전쟁은 역대하 19:2에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신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를 기도로써 승리하게 되었다. 여호사밧 왕은 스스로가 여호와께 낮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그리고 온 유다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새들 (외전) 앞에 온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대표자들을 모으고 여호사밧이 대표해서 기도하였다.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대표 기도도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올릴 때에 “한란시에 여호와의 전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원수들이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것을 살펴달라는 것이다.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을 차지 말라 하셔서 살려주었더니 은혜도 모르고 쳐들어 온 배은망덕을 살펴달라는 것이다. 셋째로, 유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으므로 “주만 바라본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태도로 간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징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여호와의 신이 레위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응답하셨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에게 응답해 주셨다. 응답의 내용은 세 가지이다.

첫째,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둘째,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작전도 지시하셨다. “내일 마주 나가 대항해라. 전쟁을 위해서 항오를 이루어라, 열과 오를 정비하여라, 골짜기 어귀인 여루엘 들 앞에서 적들을 만나라. 셋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다.

이에 백성들은 기도응답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여호사밧

왕과 온 거민이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레위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이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적을 대항하였다. 왕은 백성들과 의논하여 진군하는 부대를 구성하였다. 노래하는 자를 맨 앞에 두어 찬송하게 하였다. 성가대는 시편 136 편 “여호와께 감사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고 노래했다. 그 뒤를 군대가 따랐다. 원수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배열이지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원수들에게 복병을 두어 움직이게 하셨다. 이 복병은 하늘에서 온 천사들인 것이다. 유다사람들이 들 망대에서 내려다보니 모압, 암몬과 세일 산 거민사이에서 복병이 역사하니, 그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 죽이고 모두다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도 피한 자가 없었다고 했다. 유다군대는 단 한사람도 전사자 없이 3일 동안 적군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전리품으로 취하였다. 제4일에는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그러므로 그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무도 사망이나 슬픔 없이 모두가 즐거워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 결론

여호사밧 왕은 그의 인생에 실수도 있었지만 그의 경건성이 실수를 덮을 만큼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의 징벌 앞에서도 큰 승리의 위로를 받았다.



## 바울의 생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2,000 명이 넘습니다. 그 중 ‘작은자’, ‘작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순수 히브리인이며, 난 지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했던 자(롬 11:1; 고후 11:22; 갈 1:14; 빌 3:5-6),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고(행 21:39; 22:3) 출생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자(행 22:25-28),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하여 자비 선교에 힘썼고(행 18:1-3; 고전 9:6-15) 성경 66권 중 13권을 기술한 저자,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회심 전에 유대교 내에서 실력과 야망(열심)을 겸비한 30세 전후의 젊은 지도층 인사로 촉망받고 있었고, 기독교인(교회)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그는 성도들의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기는 등 교회를 침탈하였습니다(행 8:3).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팍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메섹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밝은 대낮, 정오에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행 9:1-9; 22:6-16; 26:12-18). 그는 밝은 빛 앞에서 일순간 시력을 잃었으며, 그렇게도 팍박하던 예수님 앞에 무너졌고, 그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 받습니다(행 9:4-9; 26:12-18; 액 3:1-8).

바울의 회심 전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선교 행적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그림을 첨부합니다. 금요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는 바울의 복음 전파를 향한 열정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의 삶에 투영되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 나갑니다. 바울 서신 13편 중 최초의 서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음편에 공개됩니다.)

### 그림으로 보는 바울의 생애



- 그림의 일련번호와 이에 대한 설명은 사건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 1. 사울(바울)이 다소에서 출생함(행 22:3)
- 2.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처형에 동참함(행 8:1)
- 3.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회심함(행 9:1-9)
- 4.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냄(갈 1:17)
- 5.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벽에서 내려와 도망침(행 9:23-25)
- 6.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함(행 9:26-31)
- 7. 안디옥이 바울의 세 차례 전도여행의 본거지가 됨(행 13:1, 15:23, 18:22)
- 8.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을 출발해 해로(海路)를 이용하여 1차 전도여행을 감행함(행 13:1-3)
- 9. 구브로에서 로마 총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됨(행 13:4-12)
- 10. 1차 전도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음(행 14:19)
- 11. 안디옥에서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남(행 15:40)
- 12.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 도움을 청함(행 16:9)
- 13.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최초의 유럽인 개종자가 됨(행 16:11-15)
- 14.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함(행 18:1-17)
- 15.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머물려 보살핌(행 19:1-20)
- 16. 동족 앞에서 자신의 입장과 복음을 변론함(행 21:37-22:29)
- 17. 배가 좌초되어 멜리데섬에 상륙함(행 28:1-10)
- 18. 로마 당국에 의해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함(행 28:30,31)

※출처  
라이프 성경사전 (생명의 말씀사)  
그림/설명: 성경익스프레스 (규장)

| 편집위원 최준호 |

#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 전 예배자가 되자 예배 중 예배자가 되자 예배 후 예배자가 되자

(시편 27:4)



강남중앙침례교회 차세대교육국

제 2 회 성 경 암 송 대 회

## 개요

- 일시: 2019년 11월 17일(주일) 오전 10시
- 장소: 멀티교육문화센터 401호
- 대상: 유아처, 초등처, 중등처, 고등처

## 암송 범위 \*개역 한글역 기준

유아처	요한복음 1장 1~14절
초등처	고린도후서 4장 1~18절
중등처	시편 103편 1~22절
고등처	에베소서 1장 1~23절

## 시상

- [1등/1명] 트로피, 메달, 30만원 상당 상품권
- [2등/2명] 메달, 20만원 상당 상품권
- [3등/3명] 메달, 10만원 상당 상품권
- [장려상/5명] 외식상품권 5만원권

## 진행

- 예선: 각 처별
- 본선: 교육국 전체(11월 17일)

## 주관

- 차세대교육국, 남전도연합회, 여전도연합회

주일예배·수요예배·기도회				
주일	1부 예배	am 8:00	2부 예배	am 10:00
	3부 예배	pm 12:00	4부 예배	pm 2:00
	5부 예배	pm 4:00	주일 새벽예배	am 6:00
	영어 예배	pm 12:00		
수요	1부	am 11:00	2부	pm 7:30
기도회	금요성령 집회	pm 8:30	새벽	am 5:30



성전건축을 위한 100만 기도시간  
달성현황표

교구	384651:31
남전도회	180272:58
여전도회 회장단	33792:07
선교위원회	121234:00
청년위원회	25489:15
교회학교	8449:05
총	총 시간 758714:56분

남은 시간

241285:44분

• 선교위원회는 매달 1575시간씩 추가

2019년 10월 6일(제201호)

발행인 | 최병락 담임목사 편집인 | 최재우 위원장 교역자 | 김요한 목사·이길호 전도사 편집위원 | 김해순·김영숙·리림·박벼리·윤유진·조유희·최영수·최준호·최지영·한혜경 사진 | 정일 발행처 | 강남중앙침례교회 출판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6길 5 구독문의 | 02-546-3950 팩스 | 02-546-1302 이메일 | kjbcgrace1976@gmail.com 홈페이지 | www.kjbc.or.kr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디자인 | GNA Communications 월간 비매품 ■ 은혜자는 재생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됩니다.